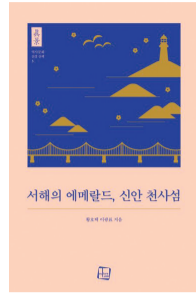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의 조화... 낭만의 섬 '신안'으로 안내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의 자원을 거느린 박물관과도 같은 지역이다. 물은 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수많은 어종과 수목, 꽃, 생물 등을 담고 있다.

'서해의 에메랄드, 신안 천사섬'은 신안의 맛과 멋, 역사와 문화 등을 조명한 책이다. 1년 6개월에 걸쳐 섬들을 직접 취재해 풀어낸 결과물이라 현장감이 살아있다. 저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황호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와 전 동아일보 기자인 이광표 서원대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다.

두 저자는 지난해 초 김중식 가천대 부총장으로부터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들었다. '서해의 에메랄드, 신안 천사섬'은 그렇게 시작됐고 두 저자는 현지답사, 지역민 인터뷰,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책을 펴내게 됐다.

서해의 에메랄드, 신안 천사섬

황호택·이광표 지음

천사 섬 하면 신안을 떠올린다. 1004는 상징적인 숫자다. 실제 신안은 유인도 72개와 무인도 953개를 합해 모두 1025개가 있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지자체가 신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제도, 강화군 등도 섬으로 구성돼 있지만 신안에 견줄 바 아니다. 천사 섬은 숫자를 넘어 긍정적이며 선한 이미지를 포괄한다. 브랜드 네이밍의 성공 케이스다.

신안 주민들 또는 한번이라도 신안을 다녀온 이들에게 신안은 어떤 모습으로 환기될까. 송고한 삶의 현장일 수도, 섬과 바다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일 수도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섬을 열거할 수도 있다.

기암괴석이 멋진 흥도를 비롯해 최대 규모의 천일염전이 있는 증도와 비금도, '자산어보'의 태생지 흑산도, 조각인들의 쟁의가 일어났던 압태도, 보랏빛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도와 박지도,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촬영지만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신안의 섬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신안은 역사와 문화, 인문, 자연 등 다양한 영역

자도는 매화와 툄립으로 유명하며, 2008년 툄립 축제 이후 이곳은 '한국의 네덜란드'가 되었다.

3부 '중부 권역'은 겨울 애기동백꽃 4000만 송이가 일품인 압해도의 바다 정원, 동양 최대 독살에서 송어를 잡는 자은도, 정유재란 승리의 교두보인 팔금도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4부 '남부 권역'은 섬초와 대동염전으로 많이 알려진 비금도를 비롯해 가장 오래된 해양 문화유산 진리 선장이 있는 우이도,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등을 다룬다.

마지막 5부 '천사섬의 미각과 미학'에서는 신안의 산해진미를 만날 수 있다. 또한 신안의 꽃 축제와 박물관 미술관 등도 소개한다. '1도 1뮤지엄' 프로젝트에 따라 입자도 조희룡미술관, 비금도 이세돌박물관, 자은도 1004 뮤지엄파크 등이 있다.

저자들은 새로운 신안학을 제안한다. 섬의 인문학을 가장 맛있게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신안이라는 것이다. '신안의 무수한 섬들이 김한기 추상화의 점이 되어 인간과 별과 우주로 나아갔듯, 신안의 섬들은 멋진 길이 되어 의미있는 삶의 무늬(인문)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곧 효율적인 문화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컬처북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도습지. 장도를 둘러싼 해식애가 절경이다.

2 박지도 바람의 언덕 이스타국화 정원에서 바라본 퍼플교. 맞은편 섬은 안좌도.

3 흥도의 북쪽 끝에 있는 흥도 등대. 1931년 일제가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세운 것이다. ©신안군

한옥 적응기

정기황 지음

한옥은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옥이다. 한옥이 주는 은은함과 단아함, 고전적인 미는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적 감각과는 변별된다.

보통 한옥이라고 하면 조선시대 옛 집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기와집은 극소수 양반들이 사는 규모가 큰 가옥이었다. 오늘날 도시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기와집은 대다수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도시한옥'이다.

우리나라 전통 기옥의 역사를 돌아보는 책이 발간됐다. 도시 연구자인 정기황 건축가가 펴낸 '한옥 적응기'는 집과 건축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다룬다. 건축적인 부분 외에도 우리나라 기후와 지형, 집과 건축에 드리워진 사회적, 문화적 함의 등을 들여다본다. 책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자하문길 주변 지역의 도시 건축적 유형 연구)과 박사학위논문(서울 도시한옥의 적응태)에 기초해 발간됐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한옥은 고전적 의미의 한옥은 아니다. 도시한옥이다. 한옥에 대한 괴리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저자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집에 관심이 적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개발업자들에게 의해 도시한옥이 개발됐다. 해방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 주저는 단순화된 데다 한옥은 전통 이데올로기로 활용됐다. 정통성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들의 방편이 된 것이다.

한편으로 한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한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옥 적응태는 미학적, 건축적, 경관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적응태는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삶과 축적된 역사의 단면이며 더 나은 공간이 되기 위한 발판이다. 저자는 기와가 덮인 팔각지붕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바로 한옥이라는 전통적 관점을 견지한다.

<빨간소금·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음오픈

최석규 지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같은 의도를 가진 말이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 말인즉슨, 어떤 말은 마음을 활짝 열어 움직이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잠가 얼어붙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30년 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최석규가 펴낸 '마음오픈'은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의 본능을 다룬다.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힘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있다고 믿는 저자는 위에서 얘기한 '왜'의 답을 '생각의 본능'에서 찾았다.

책은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여는 생각의 본능을 7가지로 소개한다. 뇌는 생각을 싫어하는 '절약본능', 척 보면 아는 '직관본능',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의 연금술이라는 '감정본능', 불편한 건 딱 질색인 '편안함추구본능', 익숙함보다는 낯설음에 끌리는 '일탈본능', 게으른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인 '틀짓기본능',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본능'이다.

일탈본능을 예로 들어보자. 네거티브는 힘이 세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어느 입시학원에 붙은 플래카드에 '수학포기는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요, 영어 포기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쓰여 있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 문구를 '수학'의 대입에 결정적이다. 영어는 인생에 필수적이다!라고 했다면 시선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끊임없이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축을 상대방으로 옮겨보세요. 내 감정보다 상대방 감정에 좀 더 집중하면서 '감정의 털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나쁜 감정이 나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내 감정의 털 고르기도 필요합니다."

<진성북스·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꽃피는 노트르담

장 주네 지음, 성귀수 옮김

감방에 갇힌 죄수 '나'는 신문에서 오래된 살인자 20명의 사진을 몰래 들여다보고 밤마다 상상을 펼친다.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부도덕한 악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거듭한다. 범죄자들이 공상 속에서 그려내는 '악의 왕국'은 어떤 모습일까.

'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장 주네의 첫 장편 소설 '꽃피는 노트르담'이 발간됐다. 20세기 문학사에서 가장 대담한 서정의 극치를 표현했다 평가받는 주네는, 서른둘의 나이에 프렌코교도에 수감됐을 당시 이 작품을 옥중에서 완성했다.

저자는 소설 초입에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그들 모두의 범죄 행위를 기리기 위함"이라 언급했다. 그는 법정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범죄자들(그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됐지만, 비극적인 죽음에서 나름의 의미를 발굴해 나간다.

미약 딜러이자 살인자, 책의 표제인 '꽃피는 노트르담'은 주인공 디빈과 미룡의 연적이다. 모든 사람을 황홀경으로 이끄는 이 인물은 감옥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고독한 사랑을 파국적으로 묘사하는 매개체다.

"나는 내 욕망을 포기한 사람이다. (...) 사람 사는 평생은 나 이 벽들 사이에서 지내게 하라. 내일 누구를 판결할 것인가? (...) 진짜든 가짜든 내가 디빈의 어깨에 올려놓은 것은 나의 운명이다."

책은 감옥 속에서 '나'의 사색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는 인간 존재를 성찰한다. 재판과 형을 기다리는 트랜스젠더 주인공 죄수 주네의 모습도 초점화한다. 그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 모인 미룡, 고르기, 가브리엘, 알베르트 등 살인자들은 저마다 죽은 디빈과의 관계를 풀어내며 삶과 죽음,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포착한다.

<문학동네·1만7000원>

/최원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